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함

3/10 월요일

아침의 누림

벤전 4:17 왜냐하면 때가 이르러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먼저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베후 1:2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벤전 5:10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유 20-21, 24-25

20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2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24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그분의 영광 앞에 흠 없는 사람으로 큰 기쁨을 가지고 서게 하실 수 있으신 분,

25 곧 우리의 구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세 전부터 지금과 영원히 이르기까지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두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라는 주제를 다룬다. ...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은 왕국에 관한 책이다.

통치와 왕국이 똑 같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지 않다. 왕국과 통치는 별개의 것이다. 나라 혹은 국가에는 통치가 있지만, 통치가 국가는 아니다. 오히려 통치는 국가의 행정상의 중심이다.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 1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마태복음은 왕국을 제시하지만, 이 책에서 통치는 발견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는 베드로의 글들에 기록되어 있다. 마가는 섬김을, 누가는 구원을, 요한은 생명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왕국과 섬김과 구원과 생명을 본다. 그러나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신성한 통치를 보지는 못한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들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보여줌으로써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운다.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써 통치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를 수행하시는 길이다. 세계 역사를 공부하고 지켜보며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쌓은 연장한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심판하심으로써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히틀러와 스탈린과 악을 행하는 그 밖의 사람들을 심판해 오셨다. 한 면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분의 목적에 기여하는 어떤 일들을 하도록 어느 정도 묵인하셨다. ...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이들을 심판하셨다.

베드로전후서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이 있다. 하나님은 대홍수로 땅을 심판하셨다. 그 후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歷史)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심판하신 것도 포함된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거듭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죽었다. 여기에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도 포함된다. 더욱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수많은 이들을 광야에 흠뻑려 사라지게 하셨다고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직 히틀러와 스탈린 같은 악인들만을 심판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백성 또한 심판하신다. 베드로전서 4 장 17 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은 그분 자신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의 목적은 그분의 우주를 말끔히 치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서 살거나 거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주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먼저 그분의 가족인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지금 우리는 그분께서 하시는 청소의 일의 중심이다. 여러분은 때때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주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내게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의 친척들은 번창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내가 처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다.” 어떤 성도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성도들은 자녀들 때문에 낙심한다. 우리에게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 자신의 집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베드로가 두 서신서, 특히 첫 번째 서신서를 쓴 이유는 유대인 믿는 이들이 흠어져 살며 박해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불같이 혹독한 시험을 통과하고 있었다. 베드로는 이러한 박해를 웅광로에서 태우는 것에 비유했다. 믿는 이들이 상심하고

의심으로 인해 흔들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서신서를 써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려고 했다. 베드로전서 5 장 10 절에서 그는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 계시므로 의심을 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은 고난과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통치는 먼저 그분 자신의 자녀들에게 집행된다.(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 19-2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

3/11 화요일

아침의 누림

벧전 1:15-17

15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하신 분을 따라 여러분 자신도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게 되십시오.

16 그것은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7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이 체류자로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히 12:1-2, 9-10

1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구름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쉽게 얹어매는 죄를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2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9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였는데, 모든 영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0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데 유익하도록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거듭남에 근거한다.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얻으며 그 결과 거룩한 생활이 산출된다.

우리는 반드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단지 어떤 종류의 옷을 입는 문제나 화장을 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다. 거룩함에 대한 그러한 관념은 너무나 외적인 것이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기질, 우리의 인격 전체가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께서 거룩하시므로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분 곧 아버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거룩하신 아버지와 거룩한 자녀들로 이루어진 거룩한 가족을 산출하셨다. 거룩한 자녀들인 우리는 거룩한 생활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 ...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본성을 갖도록 내적으로는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도록 외적으로는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징계하신다 (히 12:9-10).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위와 일에 따라 심판하신다. ... 만일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또한 재판관이신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 102-10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1 장 17 절에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있을 사람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여기에서 말하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매일 그분의 자녀들에게 집행하시는 통치적인 심판이다.” (다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가족에게 행하시는 심판이다(벧전 4:17).

베드로전서 4 장 17 절은 “왜냐하면 때가 이르러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먼저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라고 말한다.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다루시는 일과 관련된 통치를 보여 준다. 그들이 불같이 흑독한 박해 가운데서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그들이 징계받고 정결하게 되어 믿지 않는 이들에게서 분별됨으로써, 믿지 않는 이들과 동일한 운명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징계하는 심판은 그분 자신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며, 한두 번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수행된다.

‘하나님의 집’은 가족 즉, 믿는 이들로 구성된

교회(벧전 2:5, 히 3:6, 딤후 3:15, 엡 2:19)를 가리킨다. 하나님은 이집, 곧 그분 자신의 집에서부터 그분의 자녀들에게 징계하시는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그분의 통치적인 행정을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우주적인 왕국에서 그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에 거역적인 사람들을 심판하실 분명한 근거를 갖게 되신다. 이것은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베드로후서에서 다루어진다(벧후 1:11). 베드로전서 1 장 17 절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을 본다. 이러한 심판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집행되는 심판이다. ... 하나님께서 매일 집행하시는 심판의 대상은 타락한 죄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자녀들이다.

성경에 근거한 이러한 가르침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가 그분의 통치아래에서 그분의 의에 부합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신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매일의 심판 아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심판은 이 땅에서 체류자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집행된다. ... 요한복음 5 장 22 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심판, 곧 크고 흰 보좌에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있을 심판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현재의 심판이다.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 103-104 쪽, 메시지 30, 278-27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 30

3/12 수요일

아침의 누림

벧전 4:12-13

12 사랑하는 여러분, 불같이 혹독한 시련이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닥쳐올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기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3 오히려 그만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크게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롬 8:18 나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빌 3:8-11

8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벧전 5:1-2

1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나는 같은 장로로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유합니다.

2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책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의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간과하기가 쉽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는 함께한다. 삼일 하나님은 긴 과정을 통과하심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것이다. 동시에 삼일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한편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 영적인 생명 곧 신성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여전히 옛 창조물 안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름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자라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징계가 필요하다.(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1, 28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베드로의 서신서들이 귀중한 까닭은 이 서신서들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를 결합하기 때문이다. ... 베드로의 두 서신서를 주의 깊게 읽어 본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그러나 동시에 베드로는 자신의 글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듭난 백성을 통치적으로 다루시는 것에 관하여 엄중하게 말한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서신서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또한 이 둘이 어떻게 함께 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베드로전서 4 장 12 절에서 ... ‘불같이 혹독한 시련’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퓨로세이(purosei)’는 ‘불태우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은 금과 은을 제련하기 위하여 용광로에서 태우는 것을 의미한다(잠 27:21, 시 66:10). ... 베드로는 믿는 이들이 당하는 박해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사용하시는 용광로로 여겼다. 이것은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의 심판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벧전 4:17-19). 베드로전서 4 장 12 절에서 ‘이상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케니조(xenizo)’이며, 같은 장 4 절에서 사용된 단어와 동일하다. 불같이 혹독한 박해가 믿는 이들에게는 보통 있는 일이다. 믿는 이들은 그러한 박해를 이상하거나 특이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박해는 시련이자 시험이다.

베드로전서 4 장 12 절에서 베드로가 용광로의 은유를 사용한 것은 오늘날 주님께서 많은 박해와 시련을 긍정적인 목적에 도움이 되는 용광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시사한다. 박해와 시련이 돕고 있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금과 은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어느 정도의 불순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결하게 함이 필요하다. ...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같이 혹독한 시련이 보통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이상하거나 특이하거나 생소한 일이 아니다. ... 이 시대에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운명이 영원히 고난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은 분명히 이 시대에 우리가 고난당하도록 미리 정하셨다.

베드로전서 4 장 13 절에서 베드로는 계속하여 “오히려 그만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크게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박해는 태움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시험이지만, 베드로는 결국 우리가 이러한 불같이 혹독한 시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고 말한다. ...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며, 이 시대에 그분을 증언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 시대는 악한 자의 손 아래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믿지 않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들을 박해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종류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에게는 과거에 부자가 될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의

사업이 손실을 입어 그는 부유해질 기회를 잃었을 수도 있다. 그는 현재 심지어 궁핍할 수도 있다. 이러한 종류의 궁핍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한 그러한 고난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간주하신다.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1, 289 쪽, 메시지 28, 256-25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8, 31

3/13 목요일아침의 누림벧전 2:21-23

21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주셨습니다.

22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서는 속임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3 그분은 욕을 들으셨지만 욕으로 되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계속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벧전 1:17-19

17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이 체류자로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18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엡 5:15-17

15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살펴서, 지혜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하여,
16 시간을 아끼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베드로전서 2 장 23 절에서 ... ‘계속 말기셨습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의 용법에 따르면, ‘모든 것을’이라는 말이 이 동사의 목적어로 삽입되어야 한다. 여기에 삽입된 ‘모든 것’이라는 말은 주님의 모든 고난을 가리킨다. 주님은 그분 자신께서 받으신 모든 모욕과 상처를 의롭게 심판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말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 생활을 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신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하는 것에 익숙하다. 그러나 여러분은 “저는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와 표현과 말이 여전히 너무 전통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순수한 말씀 안에 있는 많은 사상과 표현을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2 장 23 절과 같은 절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참된 의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1, 191-19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계속 모든 것을 맡기셨다. 이 간략한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하셨음을 나타낼 뿐 아니라, 또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생활하셨음을 나타낸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 아래 계셨으며,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셨다.

베드로전서 1 장 17 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체류자로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고 강력히 권면한다. 이것은 빌립보서 2 장 12 절에서와같이 거룩한 두려움, 곧 우리를 이끌어 거룩하게 행동하게 하는, 건강하고도 진지한 신중성을 나타낸다. ‘(-하는 동안) 지내십시오’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을 포함한다.

여러 해 전에 나는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는 몇몇 성도들을 방문했다. 그들 중 몇몇은 그저 도박장이 어떤 곳인지 둘러보자고 내게 제의했다. 나는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 여러분이 저를 초청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기에 있지만 도박장을 보러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한 곳에 갔었다면 나는 그날 얼마의 시간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체류자로 사는 매 순간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야 한다. 이것은 거룩한 생활 방식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즉 세상에서 분별되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1 장 18 절과 19 절은 체류자로 사는 동안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 두 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체류자로 사는 동안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체류자로 사는 동안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요점은 거룩한 생활 방식이 그리스도의 사랑스럽고 보배로운 구속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저주와 악한 이 시대에서 구속하셨다고 말한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하셨다고 말한다. 세상적인 오락에 빠지거나 세상적인 옷을 구입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또한 헛된 생활 방식은 우리가 물건을 사는 방식과 관련될 수도 있다. 몇몇 자매들은 쇼핑하러 가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심지어 아무것도 사지 않더라도 그저 둘러보기 위해 그들은 매주 백화점에 간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가? 여러분은 왕의 아들과 딸들이다. 왕의 자녀로서 우리는 가벼운 방식으로 백화점에 가서는 안 된다. 반대로 우리는 물건을 살 때도 위엄 있고 기품이 있어야 한다. 나는 실질적으로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 주기 위해 이러한 예를 든 것이다.(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1, 192 쪽, 메시지 11, 104-10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 21

3/14 금요일

아침의 누림

벤전 5:5-6

5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연장한 이들에게 복종하고, 모두가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6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도록 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빌 2:2-4

2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3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위해 하지 말며, 오직 생각을 낮추어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4 각자 자기의 장점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마 11:28-30

28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30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을 포함하여 교회 안의 모든 사람은 겸손으로 자신의 허리를 동여매야 한다. 베드로전서 1 장 13 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생각의 허리에 띠를 동여매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여기 베드로전서 5 장 5 절에서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전 존재를 동여매야 한다고 말한다.

베드로전서 5 장 5 절에서 ‘허리를 동여매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노예의 앞치마’를 의미하는 명사에서 유래된 것이다. 노예가 섬길 때에는 그러한 앞치마로 험거운 겹옷을 동여매었다. 여기에서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며, 봉사할때의 미덕인 겸손을 지니는 것을 상징한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직접 수건으로 허리를 동여매시고 그분 자신을 낮추시어, 제자들의 발, 특히 베드로 자신의 발을 씻기신 모습에서 인상을 받아,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을 한 것이 분명하다(요 13:4-7).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3, 30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한다. 엄밀히 말해서 이 은혜는 겸손한 믿는 이들 안에서 번성하는 생명공급이신 삼일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 ... 믿는 이들은 이미 초기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은혜는 그들이 모든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서 번성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벧전 4:10)는 베드로전서 5 장에 있는 ‘모든 은혜’처럼 생명의 풍성한 공급으로서, 여러 방면에서 우리 안으로 공급되시는 삼일 하나님이다(고후 13:14, 12:9). 하나님은 겸손한 믿는 이들에게 그분 자신을 은혜이자 생명공급으로 주신다.

베드로전서 5 장 5 절에서 ‘겸손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또한 마태복음 11 장 29 절에서처럼 ‘겸허한’을 의미한다. 그 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라고 말씀하셨다. ... 자신을 높이는 대신 우리는 항상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5 장 6 절에서 ‘겸손해지도록 하십시오’라는 말은 수동형인데, 주로 박해 가운데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10 절). 그러나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운행에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기꺼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한다. 따라서 베드로는 ‘겸손해지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한다. ‘겸손해지도록’은 수동적인 표현이지만, ‘하십시오’는 능동적인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며 우리에게 운행하시는 동안, 우리는 앞장서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운행하시도록 해야 한다. 앞장서는 것은 능동적인 것이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운행하시게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 기꺼이 머무는 것이다.

하나님은 박해를 사용하시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실 수 있다. ...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다. 그러나 고난이나 박해는 우리가 겸손해지도록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는 실직함으로 인해 겸손해질 수 있다. 어떤 학생은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성적을 받을 때 겸손해질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겸손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어떤 형제나 자매의 자녀들이 뛰어나다면 그 부모들은 교만해질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부모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부모들을 낮아지게 만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젊은 형제의 아버지가 직장에서 매우 높은 지위에 있다면 이 형제는 교만해질 수 있다. ...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리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경비원이라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러한 낮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이것으로 인해 그 젊은 형제는 낮아질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다.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벧전 5:6).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운행에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기꺼이 겸손해지고 낮아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겸손해지도록 하십시오’가 능동-수동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십시오’는 능동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데 앞장서는 것을 가리키며, ‘겸손해지도록’은 수동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겸손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비록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여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분의 손은 여전히 우리의 동역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운행은 우리의 동역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지도록 해야 한다.(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3, 307-30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3

3/15 토요일

아침의 누림

벧전 4:19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합니다.

벧전 2:24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직접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시어 상처 입으심으로써 여러분이 낮게 되었습니다.

엡 2:4-10

4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5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6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7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8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0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 장 19 절에서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기 원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도록 정하셨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4 장 19 절에서 ‘맡기다’는 직역하면 ‘예치하다’, ‘예금하다’를 의미한다. ... 믿는 이들은 몸에 박해를 받을 때, 특히 순교할 때, 주님께서 그분의 영을 아버지께 맡기셨듯이 (눅 23:46), 그들의 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박해는 단지 고난당하는 믿는 이들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들의 혼을 상하게 할 수는 없다(마 10:28). ... 믿는 이들은 믿음으로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과 협력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9, 27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박해는 옛 창조물에 속한 고난이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우리의 혼을 보존하실 수 있다. 그분은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그 수를 이미 다 세어 놓으셨다(마 10:30).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시다. 그분의 애정 어린 신실한 돌봄(벧전 5:7)은 그분의 통치적인 행정 안에 있는 공평함과 더불어 수행된다.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가족인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사랑 안에서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 그분의 의로운 징계의 심판을 받고 있을 때, 우리의 혼을 그분의 신실한 돌봄에 맡겨야 한다.

‘죄들에 대하여 죽음으로써’(벧전 2:24)는 직역하면 ‘죄들에서 멀어짐으로써’를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은 ... 우리를 종결했고, 이러한 종결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 사람들이 죄들과 죄에서 멀어지는 가장 좋은 길은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다. ... 베드로는 죄에서 멀어진 것을 말하는 반면에 바울은 사람이 죽어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들에서 멀어진 것은,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한 것이다.

십자가의 주관적인 면은 오늘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체험에서 계속된다. 생명 주시는 영은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시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관적인 방면을 우리 존재 안에서 수행하신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적인 행동을 체험하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죄들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의 죽음은 이미 우리와 죄들 사이에 경계선을 그었다. 죄들에서 멀어짐으로써 이제 우리는 살아 있게 되었다. ... 우리는 다만 살고, 이렇게 살 때 언제나 의를 향하여 가까워진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에 대한 체험이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교통할 때, 생명 주시는 영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신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신과 죄들 사이를 분리하는 십자가의 주관적인 운행을 체험하고, 그 결과 자동적으로 의에 대하여 산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가 '의에 대하여 산다'(벰전 2:24)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를 물어야 한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요구를 이루는 것과 관련된다. 사실상 하나님의 통치는 오직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의이다. ... 베드로전서 2 장 23 절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계속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을 본다. 그런 다음 24 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관념은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다. 의는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의로운 요구들에 부합하는 생활을 하도록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그분의 통치는 의 위에 세워진다. 시편 89 편 14 절은 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 ... 우리 자신 안에서는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주는 우리를 구원하시어 의의 생활을 하게 하신다. 이러한 의의 생활은 하나님의 통치의 의로운 요구들을 이루는

생활이다.(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9, 288 쪽, 메시지 21, 194-19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1, 29

추가로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1

찬송: 21 (英) 내 주의 공의 찬양하며 (中:16)

- 1 아버지 공의 찬양해 주 공평하심 인정해 다 증언하겠네
온 땅을 심판하실 주 불-의가 없는 주님은 참 의로우시네.
- 2 의와 공의가 아버지 보좌 기초 변함없는 화평을 세웠네
그 공의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다스리니 화평이 넘치네.
- 3 공의 인애 십자가에 가신 아들 우릴 위해 죽음 당하셨네
그 구속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 받으리 곧 구원 얻으리.
- 4 아버지 의 나타내려 구약 시대의 모든 죄 다 간과하셨네
아버지 공의 위하여 이-시대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셨네.
- 5 그날 만민 심판할 때 아버지 의가 완전히 다 나타나겠네
그리스도의 공의로 굳-게 선 우리 아무도 요동하게 못해.
- 6 공평 가득한 주 왕국 화평이 넘쳐 모든 것 다 조화되리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의-거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3/16 주일**아침의 누림**

롬 8:28-32, 36-39

28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30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31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32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36 성경에 “주님을 위하여 저희는 온종일
죽음에 넘겨지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습니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38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들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